**성령충만을 사모합시다 (1)**

**<요한복음 14장 16-18절>**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신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에 의해 행하신 최초의 통치행위는 바로 성령 파송이었습니다. 곡식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인 그 오순절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회막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적국으로부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간구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님을 꼽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되는 이사야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를 얼마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혹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신뢰하던 스승을 잃고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떨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어떤 사람 옆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에게 권면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조력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릴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없는 편이 더 나은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부리거나 혹은 멀리할 수 있는 비인격체적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맺고 그에게 반응해야 할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성령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가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시고, 때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 어떤 일을 할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비인격체인 ‘그것’이 아니라 인격체인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할 지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과 똑같은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요 상담자요 조력자요 변호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첫 번째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보혜사가 본인이 떠나시면서 본인과 똑같은 일을 수행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고 또한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결코 생소한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신약성경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서로 결속된 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더 이상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계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이처럼 성령의 오심과 함께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도, 때로 우리 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가(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은 그것이 잘못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온전한 ‘의’를 계시하셨습니다. 즉, ‘의’는 우릴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근거 위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은 그것이 잘못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은 오직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심판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악, 그리고 죽음은 더이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최종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심판주인 듯 행세하거나, 하나님 대신 그 가짜 권력자를 추종하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은 그것이 잘못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자신과 세상 안에 존재하는 옳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할 때 우리가 마음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단지 내 양심이 손상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 성령께서 실망하시고 또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 마음이 감지한 결과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엄청난 보화를 깨달아, 만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으십니다. 성령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비추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영의 움직임이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따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때 주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돌이켜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옛 생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초기 제자들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갈 심산으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각적 경험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간 예수님과 교제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을 때 열매맺는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약속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더 갖고 좀더 편하게 사는 것보다, 좀더 손해보고 좀더 희생하며 사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고통스럽게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초점을 잃진 않았습니까? 무기력하진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도 나를 어쩌지 못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아무런 의미도 열정도 비전도 불어넣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려 해도 마치 생쌀을 씹는 느낌이고, 기도하려 눈을 감아도 마치 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느낌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무언가를 실행할 만한 능력도 없는 듯 느껴지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소통케 하시는 역사로, 그들은 그곳에 모여든 여러 지역 사람들 각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부활과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격적 근거 위에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삼천 명이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충만은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 방탕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 비참하게 됩니다. 성령충만도 마찬가지 원리이지만,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 섬김의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요 그리스도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충만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단지 감미롭게 순화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어 다음 주일에도 이 성령충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충만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성령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내가 성령충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저절로 성령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술창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계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이 땅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곳에 모인 우리 꼬빌리시 교우들과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